

# 2

## 장소기록과 기억 그리고 로컬리티 - 대구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와 재현을 중심으로 -

정 유 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

jeongyou@daum.net

# 목차

1. 들어가며
2. 장소성과 재현의 정치
3. 장소의 재발견: 장소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 3.1 달성의 장소 기억과 기록
- 3.2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
4. 장소성 재현을 둘러싼 로컬의 문화지형
5. 나오며

## 1. 들어가며

“과거가 그때마다의 토양 위에서 자유롭게 재구성된다.(아스만, 2003:20)”

대구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達城은 ‘고대 유적’의 전형이다. 약 2000년 전 토성으로 축성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름과 용도 그리고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달성의 장소성(placeness)을 ‘고대’라는 상징으로만 고정시킬 수는 없다. 과거는 현재의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재해석되고 재구성 되는 것이며, 장소의 의미 또한 새롭게 갱신된다. 2018년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달성이라는 장소는 어떤 맥락으로 읽혀지고, 해석되고 또 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재현되는 장소성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는 로컬리티는 어떤 모습일까?

본 연구는 대구에서 ‘달성達城’의 장소성이 재현 되고 있는 현장 사례를 조명한다. 달성은 고대 지역 지배세력의 근거지였던 ‘달성토성’에서 시작해 일제 강점기 ‘대구신사’가 들어섰던 시대를 지나 동물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달성공원’ 까지,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장소성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오랜 시간 동안 대구의 중심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적 경험들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집단경험의 저장소 같은 곳이다. 최근에는 대구시에 의해 동물원 이전과 ‘달성토성’으로의 복원이 결정되어 추진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달성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시킨다.

첫째, 오늘날 지역과 지역적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장소와 장소성이 문화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현상을 ‘장소성’과 ‘재현의 정치’라는 개념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념들을 정리하고 논의 구조를 제시한다.

둘째, 달구벌이라는 공간에 토성이 축성 되고 달성이라는 장소가 형성된 이래로 이곳에는 수많은 장소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장소 기록과 기억 읽기를 통해 달성의 장소성을 규명하고 대구에서 장소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온 과정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지역정체성 찾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같은 최근 한창 유행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들의 주요 사업들이 모두 ‘달성’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성의 장소성 재현 양상을 로컬리티 재구성 논의와 관련시켜 조명한다.

본 연구는 ‘달성’이라는 특정 장소의 기록과 기억 읽기를 통해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 보고 장소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장소성 재현 행위들이 로컬리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정치 영역임을 밝히고, 지역에서 장소성이 현재의 필요가 아닌 미래적 가치를 위해 그리고 특정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 장소성과 재현의 정치

장소(place)의 개념을 “맥락화 된 공간, 즉 공간을 맥락화 하는 실천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공간(푸코, 2014:11)”이라고 정의 한다면, 장소에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것을 맥락에 따라 서사화할 수 있다면 그곳은 장소성(placeness)을 지닌 장소이다. 장소성은 실체적이기 보다는 서사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맥락적인 것이며, 각자의 경험과 그에 따른 기억 혹은 상상에 의해 장소는 무한한 장소성을 가진다. 그리고 수많은 장소성들 중에서 무엇을 부각시키느냐는 그 장소가 속한 공간의 지배권을 갖는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서사마저도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권력집단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placeness)을 **장소 경험이 맥락에 따른 서사 작용을 거쳐 표현된 장소 정체성**으로 재정의해 사용한다. 지역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장소에서도 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소성은 갖가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장소성 중에서 어떤 장소성이 선별되고 재현되느냐의 문제는 어떤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내느냐, 즉 로컬리티 재구성 논의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지역에서 장소와 장소성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데는 실천 주체들의 가치관과 의도 그리고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매력을 느끼며 어떤 장소성을 선택하는가, 장소를 다루는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장소성을 어떤 목적과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장소와 장소성 사용 주체 간에 갈등과 충돌, 합의와 조정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장소성 재현 행위는 결국 지역의 다양한 실천 주체들이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위치를 점령하고,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설계하고 기획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실천이자 정치·경제적 전략이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재현의 정치’는 **지역의 특정 장소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발견-재현-재장소화 되면서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소를 재발견 한다는 것은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기존의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것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고, 깊숙이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현재의 문화를 유지하거나 전복시키는 일종의 문화적 실천<sup>1)</sup>이다. 그리고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재발견<sup>2)</sup>된 장소는 시대적 상황이나 필요, 목적에 따라 재맥락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수

1) 문화의 의미를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사물이나 상태가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한다면, 문화적 실천이란 끊임없는 ‘의미의 생산’ 행위이다.

2) 김영민(2010:45) “발견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재인식의 경험 속에서 한 순간 안팎으로 밝아오는 상호연관성이며, 인간의 해석학적 조응관계 속에서 재배치된 것이다.”

한 장소성 중 그 시대에 적합한 장소성이 선별되어 편집되고 기획되는 문화적 전략 행위로 이어지고, 그러한 전략에 따라 장소적 의미와 가치가 구체화·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재현된 장소성은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전망을 위해 사용되고 또 재사용된다.

따라서 장소를 재현하는 행위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다. “장소의 문화정치는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장소들이 재현됨과 동시에 그 장소의 재현이 권력관계를 정당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쟁의 초점은 재현과정(이무용, 2005:35 재인용 Rose, 1994)”이라고 한다. 재현의 과정에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라는 목적과 필요 그리고 가치관 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장소성 재현을 통해 한 지역 공동체 혹은 특정 정치 집단이 지향하는 정체성이 이념화될 수도 있고, 한 집단의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자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라 장소는 끊임없이 재장소<sup>3)</sup>화되고 있으며 이는 로컬리티의 재구성으로 이어진다. 달성이라는 장소가 형성된 이래로 재발견-재현-재장소화 되는 현상을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3. 장소의 재발견: 장소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달성’ 혹은 ‘달성공원’은 지역에서 매우 밀도 있는 장소성을 가진 장소이다. ‘산이 날아와 앉았다’는 전설부터 시작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 대구토박이로 불리는 달성서씨 세거지에 대한 문헌들 그리고 근대 일제강점에는 일본에 의해 신사神社가 지어졌던 곳, 해방 이후에는 정문 앞에 키다리아저씨가 서있었던 동물원 등의 수많은 기억과 기록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 내러티브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각색이다. 고문서와 고지도로 같은 문헌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역사적 실체로서의 도시의 시공간성을 규명할 수 있다. 고고학적 발굴 조사 보고서는 어떤 건조물이 건설되고 사용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실증자료를 제공해준다. 또 사람들의 구술로 전해지는 전설과 민담에서 부터 개인적 경험담까지 어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 볼 수도 있다. 달성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사고들을 신문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도시를 독해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들의 상호텍스트성<sup>4)</sup> 분석을 통해 한 장소의 장소성을 파악하고 규명해 볼 수 있다.

3) 김춘식(2011:122) “도시의 ‘장소성’은 기억이 아니라 기능과 구획, 배치에 의한 공간의 재장소화와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4)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 텍스트를 매개로 상호 인용하고 차용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 텍스트들이 맺고 있는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 등장하였다. 윤택림(2006)은 이에 대해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텍스트의 맥락을

여기에서는 달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각종 문헌자료들과 달성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구술자료들을 통해 달성의 지역적 맥락을 파악하고 장소성을 규명해 본다.

### 3.1 달성의 장소 기억과 기록

달성에 대한 기억과 기록은 그야말로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달성의 기원 전설을 동네 노인정에서 들을 수 있고, 1145년에 쓰여진 《삼국사기》에서 ‘달벌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 또 일제 강점기 어느 일본인 고고학자에 의해 수행되어 작성되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고고학 발굴 보고서에도 들어 있다. 193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학생의 수학여행 기행문에도, 대구에서의 성장기를 서사화 시킨 지역 출신 어느 작가의 소설 속에도 달성은 어떤 이미지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기억과 기록들에는 지역민들에 달성에서 겪었던 다양한 장소경험들이 집단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달성에 대해 쓰여진 첫 공식 기록은 《삼국사기》(1145)로, “첨해 이사금 조 15년(261) 봄 2월에 달벌성을 쌓고 나마 극중을 성주로 삼았다”는 한 문장이 담겨있다. 그 후로 《경상도지리지》(1425),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대구읍지》(1767~1768) 등 몇 개의 역사서와 지리지 등 공식 문헌에서 몇 줄 언급되고 있지만 그 수도 많지 않고 내용도 간략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텍스트들의 대략적인 내용은 달성은 261년 ‘달벌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성되어 공간성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달벌’, ‘달구벌’, ‘달성’, ‘달구화현’ 등의 지명으로부터 ‘대구’라는 지역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달성은 대구가 ‘기원한 장소’이며 그래서 각종 기원 전설과 민담 등이 전해지며 ‘신성한 곳’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텍스트는 일간지에 소개된 지명 유래 전설과 달성공원 인근 마을 경로당에서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었던 관련 이야기이다.

#### ▷ 달성達城과 전설傳說 / <동아일보> 1923.10.26. / 지방소개 ‘대구호’ 기획 기사

대구의 고호가 달성이오 가경에 주린 대구에는 업지못할 달성이다. 하여간 평지에 돌기하여 이화판을 버린듯한 천작갓기도하고 인작 갓기도 한 신기가승이오 구릉이다.

그리하여 그 신기하니만큼 여러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다. 옛날이 달성이어 대선지등등 떠드러오는 옛던 표모의 괴발성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안졌다 하며 또는 이 달성 안에 고래로 수호신장이 잇서 외적은 감입치 못하게한다기도 하지만 그 역도금하야서는 별 영험이 업는 모양이오다만 신라 전성시대에 경주반월성의 규를 이하야 축성한 것이란 전설이 잇스며 달성서씨 조선의 봉군지

아울러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맥락 또는 컨텍스트는 문화적·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를 의미하는 것이다(2006:192)”라고 말한다.

이라는 것은 사적에 있다.

날피는 산이 날아오다가 어떤 여자가 산이 날아온다고 방정맞게 말을 해서 주저앉았다고 해서 날피라고 하지. 날피는 날미라고 하는데, 저기 원고개 있는 비봉초등학교 앞을 말하지. 비산성당 있는 쪽 말이야. [제보: 박규석 / 남 / 84세]<sup>5)</sup>

그런데 달성이 대구가 기원한 곳이라는 장소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또 문화적 유산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서이다. 달성에 대한 첫 고고학 조사는 1909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 의해서였는데 이때 달성에 남아 있던 경상감영 소속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석기시대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1917년 시굴조사를 했지만 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후 1923년 서문시장 이전 과정에서 고분군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최초의 고고학적 구제발굴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는 1923년 당시의 발굴 보도 기사이다.

▷ [천여년전의 고물을 대구에서 발굴하였다] / <동아일보> 1923.07.31.

조선고대의 유물이 얼머전 대구부와 달서면당내동고분에서 발견되야 총독부사적조사회에서는 소천기수小泉技手외에 일명을 곳으로 특파하여 수일전부터 감정한 결과 적어도 일천이삼백년전 유물로 판명되얏으며 부근에는 아직도 고분이 만흠으로 총독부에서는 그 부근일대를 대구모로 발굴하려고 작덩하얏는데 그곳은 목하 민유지로 잇는 까닭에 엇더한 방법으로 발굴할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라하여 발굴되는 물건은 넷날(옛날) 군사들이 입을 갑옷과 군도와 여러 가지 보옥이 많은 대 사람의 이도 두 구가 발견 되얏다더라.

기사에 따르면 발굴된 고분은 적어도 1200~1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부장품으로 갑옷과 군도 같은 각종 무구와 보옥 등의 장식품 뿐 만 아니라 유골도 일부 발굴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주도로 활발하게 고고학적 유물 및 유적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고학 발굴조사의 결과로 1939년에는 [빛나는 우리의 자랑 보물, 명승고적 추가지정 발표]<sup>6)</sup>라는 타이틀로 전국의 유적과 유물들을 보존하게 되는데, 이때 지정된 보물 39건 중 '대구달성'유적이 포함된다. 대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달성의 유적과 유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보존되는 과정이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총독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근대사의 비극을 실감하는 일이다.

5)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시 서구 행복한 날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 보고서』, p.148.

6) 관련 기사: “빛나는 우리의 자랑 보물, 명승 고적 추가지정 발표” / 동아일보 / 1939.10.17.

이처럼 일본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토성이라는 달성의 장소성은 근대가 되면서 일본에 의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영험한 우물과 연못이 있고 '산이 날아와 앉았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마을 동산에 어느 날부터 일본 헌병 부대가 주둔하고 공원이 되더니 나중에는 일본 신을 모시는 신사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달성에 일본 신사가 지어진 과정은 역사적 충돌의 장이다. 1894년 '동학의 난' 진압 명분으로 일본 헌병대가 달성에 주둔한 후 달성은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다. 1930년에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대구이야기大邱物語』(1998<sup>7)</sup>)에 달성을 둘러싼 당시의 갈등 양상과 공원으로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일본인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달성산은 1894~5년의 청일전쟁 시에는 일본 병사의 야전지로 쓰이고 있었다. 1904년 4월 일본의 수비대와 한국 진위대가 바로 충돌할 기미를 보이자 수비대장의 명령아래 대구의 일본인이 이 달성산에 농성하며 생사를 건 준비까지 했던 때도 있었다. (...) 1906년 5월, 2천 5백원을 들여 요배전을 건설하고 낙성봉헌식을 거행한 것이 그 해 11월 3일이었으니 이 날이 바로 천장절(天長節:일본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였다. 또 1907년에는 달성 공원 기성회를 발기하여 1만여 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 약 6만 그루의 묘목을 심은 것이 밀림처럼 되어 오늘의 풍치를 이루고 있다. 민단 설치 후는 민단이 경영에 힘썼다.(카와이 아사오, 1998:27~28)

1904년부터 달성이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은 대구라는 도시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과도 같았다. 일본인들로서는 대구에서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달성에 대한 사용권을 쥐게 된다는 것은 향후 상권 장악과 도시 이용에 있어 상징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1906년 이후 요배전과 신사가 건립되면서 달성은 본격적으로 '대구신사'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달성에서의 장소경험은 조선인 인지 일본인 인지에 따라 서로 엇갈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1909년 1월에 있었던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달성을 방문한 이벤트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아래는 당시 순종의 남순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들로, 첫 번째는 일본이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미주 한인사회의 민족단체인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 발간한 <신한민보>에 실

7) 『대구이야기大邱物語』(1998년)를 번역한 손필현은 저자 카와이 아사오에 대해서 '일확천금 꿈을 안고 한국으로 건너온 잡상인인 가와이 아사오가 어찌하다가 대구에 정착하면서 조선민보사를 맡아 경영하게 되었고 그가 30년간 보고 겪은 바를 서술한 회고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상인으로서 대구에 건너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는 개인적 목표와 일본인으로서 식민지 땅을 개척하고 경영하려는 의지가 책 곳곳에서 읽혀진다. 철저히 일본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작성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구로 건너온 저자와 같은 젊은 '개척자'들이 대구거류민단大邱居留民團 조직해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어떻게 조직적 활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린 관련 기사이다.

1909년 1월 12일에는 황송하게도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임행이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 당시 통감도 동행하는 영광을 얻어 폐하와 통감 모두 공원 주위 경승지를 돌아보았는데 폐하는 만족스러워 하셨다. 경성으로 환궁하신 후 달성공원 기성회에 일금 500원을 하사하셨다.(미와 조테츠, 2016:101)

▷ [어가남순회신회보] / <신한민보> 1909.02.10.

황제 폐하께서 남도에 순행하심은 당시 년보로 게재하였거니와 금에 내디 특보를 거한즉 어가 1월7일에 각부대신 이하 일본 통감과 기타 한일관리를 배중케하시고 서울을 발령하사 특별차를 타시고 당일 대구에 도착하시니 (...) 백성들은 일본이 간계를 내어 어가를 모셔가는 줄로 알고 대구 협성학교 학도와 기타 농민들이 땅에 엽대여 길을 막으니 일변 효유하고 일변 위력을 보여 하산케 하였으며 (...) 순행하신 목적인 지방민을 안무하고 한일교의를 돈독케하기 위함이라 하난 그 실상은 일본정부에서 통감 이등에게 내명이 잇삼이 오토난자래에 군민 상하가 간격되얏든 구식을 벽과하야 후일에 국경을 출입하난대 백성의 의심을 업시코져 하난 수단이니 실로 폐하의 성의로 나오심은 아니라하며 통감 이등은 대구부산마산 등지와 기타 소경 각처에서 한국인민을 대하여 현황한 연설을 ○○○○ 각지에서 어가의 향해난 길을 막든 인민들을 반신반의 하야 달은 거조난 업섯다더라.

조선시대 왕의 지방 행차는 혼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와 그에게 협조적이었던 조정 대신들은 이를 적극 추진하였기에 이 이벤트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화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정치적 계산으로 이용되었다고 해석된다.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왕이 납치되어 간다는 소문부터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개혁하고 개항하려는 개략이라는 설이 떠돌았고, 이에 학생들과 농민들이 왕의 행렬을 막아서기도 했다. 반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꾸며놓은 달성공원을 자랑하듯이 왕에게 구경시키고 또 하사금까지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순종의 남순행이라는 이벤트 대한 당시의 평가와 해석도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순종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적 개략에 놀아난 무능하고 나약한 왕 일 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나라가 위태로운 와중에 백성들을 돌리보면 힘을 실어주고자한 의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부딪히면서 조선의 마지막 왕의 지방행차는 해석의 여기가 많은 역사가 되고 있다.

달성에서의 이처럼 제각각 다른 입장과 위치가 만들어낸 장소 경험은 훗날 엇갈리고 일치하지 않는 장소 기억과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달성공원 신사에 도장 찍으러 간다고 한 일 년 댕겼다니까. 노트 얻는다고 (….) 동인동에서 거기 까지 아침마다 가면 도장은 참배를 하고 나오는 사람만 찍어주데. 그러니까 얼마나 압삽하게 합니까. 어른들도 압삽하게 합디다. 우리(회도학교)는 가까우니까 그런(동원 행사) 일 있으면 많이 불렀다. 계성하고 신명하고도 그렇고.” [정말분 / 여 / 1932년생 / 대구 동인동 출생]<sup>8)</sup>

“대구에서는 대구신사가 제일 컸고,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행사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마쓰리[祭: 축제]도 성대하게 행해지는 그런 장소였지요. (….) 신사는 모든 일본인의 공통된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기모노를 새로 맞추면, 기모노를 입고 먼저 신사참배를 했지요. (….) 공원이기도 했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터이기도 하고, 또 작은 산 같은 것도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놀이터였지요. 옛날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사에 가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라든지, 아무튼 모든 것이 신사였지요. 그런 곳이 대구신사였어요.” [스기야마 토미 / 여 / 1921년생 / 전남 영광 출생 2살 무렵 대구 이주]<sup>9)</sup>

▷ [아동 오십명 요배식 뒤에 졸도 - 대구에 생긴 대 참변] 기사 / <동아일보> 1933.04.28.  
이십칠이 오전으로부터 대구신사 앞에서 정국신사임시대제 요배식과 위령제를 행하였는데 연예에 의하여 소학교 아동들이 모혀 요배와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보통학 교와 소학교 아동 중 오십명이 졸도하였다. 최초는 일사병으로 의심 하였으나 결국 두 시간 여의 기립을 한 까닭에 뇌 빈혈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고 동시에 결식한 것이 중대한 원인이라 한다.

첫 번째는 달성으로 ‘역지 참배’ 갔었던 조선인 여학생의 경험담이며, 두 번째는 근처 소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일본인 여선생의 회고이다. 세 번째는 1933년 4월 ‘대구신사’에서 있었던 행사에 동원됐던 오십 명의 학생들이 빈혈을 일으켜 졸도했다는 <동아일보> 기사이다. 그리고 [사진2]은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의 일본인들이 발행한 <부산일보> 1940년 2월 13일자 기사로, 일제강점기 ‘대구신사’에서 열렸던 ‘대구의 기원절’ 행사의 모습이다.

비슷한 시기(1940년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 때, 그 장소’ 달성을 경험했던 두 여성의 기억은 어떤 부분은 겹쳐지고 어떤 부분은 어긋나고 있다. 그리고 아래 신문 기사들은 이 여성들의 증언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적어도 10년 전(1930년대)부터 대구신사 인근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곳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일본인들에 의해 ‘대구의 기원절’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혈’과 ‘결식’ 같은 단어들로부터 당시 열악했던 생활환경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사진 속 풍경

8) 대구여성가족재단, 2015, 『대구·여성·섬유』, 대구여성가족재단, p.74.

9) 20세기민중생활사 연구단, 2011, 『스기야마 토미』, 눈빛, p.59.

을 통해 저 행사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었는지 짐작할 수도 있다.



[사진 1] '일요일 오후 대구신사 입구에서 만난 달성국민학교 제자들과 함께(1943년 가을)  
[출처: 20세기민중생활사 연구단, 2011:58]



[사진 2] 대구의 기원절: (上右)대구신사 폐백공진사참향 (同左)동어O의 무희 (下)초등학교의 건국체조  
[출처: <부산일보> 1940.02.13]

타자에 의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근대적 변화와 '대구신사'에서의 장소경험은 대구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억지 신사 참배를 하러 가던 장소'라는 기억이다. 아래는 신사참배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이다.

달성공원에는 왜놈 신사가 있었습니다. 방학 되면 신사 그곳에 꼭 가서 합장하고 도장 찍어서 나중에 개학일이 되면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안 가면 도장을 못 받거든. 그래서 그 곳에 안 가서 벌 받고. 그래서 굉장한 배일排日을 심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윤한수 / 남 / 1935년생 / 대구 출생]<sup>10)</sup>

이처럼 근대 및 일제 강점기에 달성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대구신사'로 경험되었으며 그에 따른 집단기억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대구신사'라는 달성의 장소성은 삭제되거나 은폐되어야 하는 어두운 경험일 뿐일까, 아니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일까? 대구신사로서의 달성의 장소성을 지역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달성토성'에서 시작해 '대구신사'의 시기를 거쳐 온 달성은 오늘날 달성공원으로 불리고 있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 달성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했으며, 1946년부터는 '단군숭배회'에서 일본인

10) 도심재생문화재단, 2016, "6.25참전 소년병의 생애와 바람: 윤한수(1935년생) 구술생애사", 『대구 중구생애사열전 64』, (재)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p.40.

들이 신사로 쓰던 건물 내부를 철거하고 단군을 모시는 천진전으로 사용하다가 1966년 해방 후 21년 만에 신사의 흔적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대구신사'로서의 장소성은 삭제된다. 1950년 6.25 전쟁 중에는 한국통신부대의 막사가 주둔하고 이후 육군영헌부대의 유골봉안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1948년 지역의 대표적인 시인 이상화의 시비가 건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동학교주 최제우 동상, 의병대장 허위 선생 순국 기념비, 이상용 구국 기념비, 석재 서병오 예술비 등 지역에 연고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동상과 기념비 등도 곳곳에 건립된다.

1960년대 이후 경제 및 산업발전기를 맞이하고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공원과 동물원으로 조성된 달성은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 억지 신사참배 하러 가던 곳 혹은 전쟁 후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곳은 이제 대구 사람들이 유치원 소풍을 가고, 가족 봄나들이를 가고 정문 앞에 '키다리아저씨'가 있는 '달성공원'이 된다. 이때부터 달성공원은 대구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 한다. 사람들은 장롱 속 오래된 앨범 속에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그 추억들을 저장하고 있다. 이런 추억은 [2012년 달성공원 추억 사진 전국공모전]을 통해 지역에 공유되기도 했는데, 관계자는 "사진 공모전의 취지는 대구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달성공원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공원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sup>11)</sup>이라고 개괄 의견을 말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사진 3] 1958년 달성공원 정문 풍경(위)과 망경루(아래) 모습  
[출처: 도심재생문화재단, 2015:34]



[사진 4] 김현수 씨가 큰아들과 큰딸과 함께 달성공원에서 놀러 가서 찍은 사진  
(김현수 / 남 / 1942년생)



[사진 5] '달성공원 추억의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김동춘(본리동) 씨의 '달성공원 거인아저씨' 사진

11) 출처: ["그땐 그랬지" 달성공원 43년 '추억' 보내세요] 기사 / <매일신문> 2013.03.15.

위의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추억인 순간들일 뿐이지만 사진 공모전과 전시회와 같은 형태의 공적인 영역에서 공유되면서 지역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일종의 기억의 저장소<sup>12)</sup>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중구 생애사 열전』 시리즈<sup>13)</sup>에서도 지역사람들의 달성공원에 대한 추억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추억을 쌓는 공원으로서는 기능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점점 쇠퇴해간다. 빛바래고 녹슨 안내판과 나이 들어 움직임이 둔해진 동물들 그리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점령한 공원벤치가 현재의 달성공원의 풍경이다. 아래는 현재 대구 시민들이 말하는 달성공원의 이미지이다.

달성공원 하면 우울증 걸린 동물들 하고 시간 때우는 할아버지들만 생각나는데요. 어릴 때는 소풍으로 한두 번 쯤 가봤지만 일부러 찾아 간 적은 없어요. (이00 / 1983년생 / 여)

아이들이 코끼리 보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가긴 가죠. 대구에서는 동물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관리를 너무 안하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은 정문 앞에서 파는 풍선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김00 / 1977년생 / 여)

이렇게 ‘대구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이었던 곳 하지만 유행이 지나버려 낡고 누추해진 공원은 최근 변화를 준비 중이다. 아래는 동물원 이전이 결정되고 ‘달성토성’으로의 복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련 기사이다. 달성은 이제 동물원과 공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복원되어 ‘달성토성’으로의 재장소화 준비하고 있다.

▷ [동물원 이전에 문화재 '달성 토성' 복원 속도 낸다] / <연합뉴스> 2017.05.21.

시는 중구 달성동 달성공원 동물원이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하면 연계사업으로 ‘대구 달성’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고대국가 시기 대구 원형으로 달구벌 역사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1963년 사적 제62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안

12) 아스만(2003)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기억의 장소’, ‘장소의 기억’에 대해 “장소는 집단적 망각의 단계를 넘어 기억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곳이다 (...) 장소가 기억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장소를 되살리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개인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이 그 장소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들의 기억 과정들을 다른 기억매체들과의 결합 속에서 자극하고 보강하기 때문에 일어난다(아스만, 2003:25)”고 설명한다.

13) 『대구 중구 생애사 열전』 시리즈는 2008년 설립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2012년부터 도심의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어르신 개개인의 치열했던 생애사를 기록,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중구를 비롯한 대구 도심공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억을 생애구술사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도심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재조명하고 있다.(참고: 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식홈페이지 www.djrcf.or.kr)

에 신사를 짓는 과정에서 달성은 원래 모습을 잃었다. 1970년에는 동물원이 들어서 대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긴 했어도 달성 역사는 묻히는 듯했다. (...) 대구대공원 개발 방침에 따라시는 달성 복원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달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시관을 건립하고 2025년까지 역사유적, 탐방로 등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달성을 복원하면 경삼감영, 대구읍성, 순중 어가길 등과 연계해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에서 ‘역사 정체성’, ‘지역의 역사’, ‘대구 원형’, ‘달구벌’, ‘묻혀진 역사’, ‘역사 유적 탐방로’, ‘역사문화관광’ 등의 단어들 이 특히 눈에 띈다. 달성토성 복원을 통해 대구의 원형을 확인하고,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묻혀진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계획이 어느 시점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성 된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왜 달성의 ‘장소의 재발견’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일까?

### 3.2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

사실 대구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도심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가 재발견되어 아카이브 되고 또 재현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다. 2000년 대 초반 시민 활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대구의 재발견]<sup>14)</sup> 프로젝트는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경험과 일상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오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지역민, 지역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물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고, 지역적인 것들이 문화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는 정책 자원, 문화 콘텐츠, 공적자원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모든 사유가 기억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기억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념적 사유의 틀에 압축되고 정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한다(홍원표, 2011:69)”고 한다. 이는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흔적들에서 의미를 찾고 이름을 붙이고 정리하는 일 그리고 경험과 기억에 대한 보존 작업 즉,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지역 청년들이 시험 삼아 그려본 ‘대구 골목지도’였다. ‘여기가 바로

14) ‘대구의 재발견’이라는 용어는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중 대구 중구의 사례를 정리한 『대구의 재발견: 도시만들기, 10년의 궤적과 경험』(2013)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대구 중구 원도심 공간을 대상으로 10여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민들의 창조적 활동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기획되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중구 도심재생활동의 이슈와 경위’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법, 도심재생 활동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등을 담고 있다.

대구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골목이다'라는 말을 확인해보기 위해 골목을 걷고 사람을 만나면서 수집된 이야기와 정보를 바탕으로 대구 도심공간의 골목 지도를 그렸다. 이 활동은 '대구문화지도'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간되어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지도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한 도시 공간 안에 2000년 전 토성과 100년 전 읍성과 불과 60여 년 전 식민지 흔적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지도를 통해 더 많은 기억이 환기되기 시작하는데,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약전골목의 기억, 어떤 구술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확실히 텍스트화 된 것들보다 생동감 있게 도시 공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권상구, 2015:143)"고 한다. 골목을 걸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듣고, 다시 이야기 하는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잊혀지고 묻혀져 있던 이 도시의 기억들이 하나둘 소환되어 나오기 시작 한 것이다.

이렇게 도시가 지닌 장소 이야기들이 하나둘 수집되었고, 향후 이것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활동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들로 활용된다. 이것이 도시의 장소 아카이브의 첫 단추가 꿰어진 계기이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구 도심 공간에 대한 지도, 가이드북, 골목투어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뜻밖에도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되면서 2002년에는 그 주체들이 '거리문화시민연대15)'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해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문화적 실천으로 대구 도심부의 30여개의 골목길이 재발견되고 구체적인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대구가 재발견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활동가들은 '장소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대구新택리지』(2007) 집필과 발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구 도심 공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소들이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되어 있는 『대구新택리지』 발간은 대구 도심 공간의 문화지형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책은 기존의 지역 역사나 향토사를 정리한 책들과는 다른 관점과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걸는 즐거움, 대구생활사가이드북: 대구의 재발견'이라는 서브타이틀을 달고 있는 [대구新택리지]에 대해 박충환(2016)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도입부에서 낡은 내의와 파자마형 반바지 차림의 한 노인이 손 때 묻은 한옥 문지방에 기대앉아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 이 문구는 골목투어 진화 1단계를 관통하고 있는 반엘리트주의적 역사관과 반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15) '거리문화시민연대'는 대구 도심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하던 지역청년들이 주도해 조직된 시민단체이다. 조직을 꾸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무국장 권상구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구를 기록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류 사학자나 도시 주류들에 의해 깔끔히 정리된 역사가 아닌, 시민들의 살아 있는 생생한 역사들을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플랫폼화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권상구, 2015:142~144)"고 거리문화시민연대의 조직 목적을 밝히고 있다.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단계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심적 시선은 바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 그리고 최근 신자유주의적 시장관계의 확산으로 화폐가치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기 이전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노스텔지어이다.(박충환, 2016:157)

위의 분석처럼 『대구新택리지』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재발견하고 있다. 첫째, 대구의 모든 인물들이 차이나 차별 없이 담겨져 있다. 저항 시인 이상화와 이육사 그리고 평생 어느 양반집 문지기를 하고 있는 엄익도 씨가 동일한 선상에서 언급된다. 모두의 역사 혹은 소문자 역사를 지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기존의 시간적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장소적 차원에서 지역을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공간의 변천을 볼 수 있는 많은 지도들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달성’과 ‘대구읍성’ 같은 특별한 장소와 그 장소에 얽힌 지역적 경험들을 각종 이미지를 곁들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다양성을 가감 없이 수용한다. 이 책에는 어떤 시공간에서 벌어졌던 모든 이벤트들을 담고 있다. 독립운동 같은 식민지 저항 활동 뿐 만 아니라, 친일부역의 행위 그리고 일본이나 선교사, 화교들 같은 외부인들에 의해 이식된 근대적 생활양식도 되도록 빠짐없이 기록하려 했다. 책의 집필자는 “나는 이집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구암서원을 지키던 종처럼, 한 번도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 또 대구에 살고 있는 화교들처럼(권상구, 2015:43-44)”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가감 없이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담고, 직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구新택리지』는 이 도시를 이해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자 도시의 역사와 일상, 삶과 문화, 사람과 사물, 사건과 사고 등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대구 아카이브’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대구 도시 활동의 교과서가 되는 책’이라고 말해지는 『대구新택리지』에서 아카이브 되고 있는 달성의 장소성은 [표 1]과 같다.

16) 일반적으로 아카이브archives는 ‘역사적 기록물을 모아두는 기록 보관소’이자 ‘역사적 기록물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아카이브urban archives는 ‘도시 공간의 다양한 역사·문화 흔적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자료’를 말한다. 아카이브의 필요성 특히 지역 문화에 대한 아카이빙의 중요성에 대해 조경만(2004:91)은 “사물에 대한 토착지식과 아카이빙은 대상물에 대한 고유한 경험과 특수한 형식의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담은 것이다. 경험과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 지식 속에 농축되어 있으며, 아카이빙은 그 경험과 관계들을 풀어내고 고유의 분류체계를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은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삶과 정서의 세계, 각 생활세계에서 생성된 삶의 의미, 세계관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표 1] 『대구新택리지』에서 아카이브 되고 있는 달성의 장소성과 키워드

시대	장소성	키워드
고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 / 이천년 달성의 생활사 / 달성공원의 전설 / 2천년 동안 변함없는 대구의 랜드마크, 토성 / 대구인근 지명의 기원이 된 공간	토성, 기원, 이천년, 전설, 랜드마크, 지명의 기원
중세	고려말부터 서씨일문의 근거지 / 경상감영의 정문이 여기에 있네-관풍루 / 대구 아이들의 담력 시험장-망경루 / 달성은 서씨들의 땅이었습니다요-달성서씨 유허비	달성서씨, 경상감영, 관풍루, 망경루,
근대	1894년 일본헌병대가 주둔한 달성 동쪽 평지/ 1909년 3월 10일 일본육군기념제 / 달성이 신사와 공원으로 조성된 배경 / 해방 후 20년이 지나서야 철거된 대구신사 / 일제시대 대구신사 배치도 / 달성을 방문한 조선의 마지막 임금 / 달성을 방문한 순종에 대한 기록 / 이씨조선 영친왕의 아들이 설계한 동물원 / '대구에서 효시한 동학교주-최제우 동상 / '한국 최초의 문화비-이상화 시비 / 한국 최초의 어린이 현장비 / 구한말 의병대장 허위 선생 순국 기념비/ 이상용 구국 기념비 / 팔능거서-석재 서병오 예술비 / 시·서·화의 대가-죽농 서동균 선생 문화비	일본군 주둔, 대구신사, 순종 방문, 동상, 기념비
현대	공원에서 다시 토성으로 / 해방 후 영화제작의 명소 / 달성공원의 수문장-류기성 키다리아저씨 / 달성공원 앞의 명물-길거리 철학관 / 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엽기적 사건-달성 요구르트 독극물 사건 / 대구향토역사관 / 동물들이 자유로워지고, 달성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가봤던 달성공원의 풍경 / 시간이 멈춰선 흔적, 달성공원 입구 풍경 / 달성 기슭에 자리잡은-날피마을 / 문학속의 비산동-김원일 <마음의 감옥>	공원, 동물원, 키다리아저씨, 비산동, 날피마을

『대구新택리지』에서 달성이라는 장소와 장소성을 다루고 있는 방식을 분석해 보면, 우선 달성을 제일 첫 번째 장에 배치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인 달성의 역사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물들을 구경하고 공원으로로서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그 2천년의 역사성을 인식하면서 토성자락을 걷고, 일제 신사의 흔적을 찾아보고, 수령 많은 고목들의 풍치를 느껴보고, 관풍루와 망경루에 올라보며 공간을 인식하고 장소를 탐색해보는 적극적인 행위로 달성을 관람하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공원에서 다시 토성으로’라는 타이틀로 대구시에서 동물원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토성으로의 복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달성 기슭의 성곽, 땅에 묻힌 고대우물터, 군사훈련장, 서씨 세거지, 매립유물 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의견(거리문화시민연대, 2007,52)”이 많음을 지적한다. 복원을 논하기 전에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역사성 규명이 필수라는 것이다. 사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어 몇 번에 걸친 고고학 조사가 있었지만 여타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구제발굴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와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토성으로 복원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구新택리지』에서는 달성을 여러 각도에서 재발견하고 있는데, ‘토성’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삭제되어있었던 ‘대구신사’로서의 장소성도 포함시켜 그 시기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여기에 어떤 장소 기억과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 아카이브와 장소성 규명을 통해 이 책이 ‘있었던 것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로'의 역사 찾기와 기록하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카이브 된 달성의 장소성은 최근 '지역 정체성 찾기', '도시만들기', '도시재생' 같은 지역적 과제 혹은 사업들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 되고 있다. 2천년 동안 축적되어 온 장소성 중에서 어떤 장소성이 선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선별되고 재현되는 과정에 어떤 정치·문화적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지 4장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 4. 장소성 재현을 둘러싼 로컬의 문화지형

달성이 재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달성공원 장소성의 사용 주체는 대구시와 서구 그리고 중구이다. 달성을 사이에 두고 서구, 중구가 맞닿아 있으며, 달성공원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대구시이다. 아래 [표 2]는 대구시와 서구청, 중구청이 달성의 장소성 재현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 내용들이다.<sup>17)</sup>

[표 2] 달성 장소성 재현 관련 사업 내역(2018년 현재)

	사업명	사업 개요
대구시	달성토성 달서천 복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사업: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li> <li>•추진전략: 문화자산 복원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li> <li>•세부내용: 달성토성 및 달서천 복원 / (구)구암서원 중심 한옥스테이 활성화 / 문화자산 및 공연예술 활용 도심 관광 활성화</li> </ul>
대구시 중구	순중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li> <li>•사업기간: 2013~2017</li> <li>•대 상 지: 수창동 및 인교동 일원</li> <li>•세부내용: 순중황제 어가길 역사거리 조성 / 인교동 공구골목 가로경관 개선 / 수창초교 인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li> <li>•주관체계: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시) / 도시경관과(구)</li> </ul>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사업: 새뜰마을 사업</li> <li>•사업목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li> <li>•사업기간: 2015~2018년</li> <li>•대 상 지: 중구 성내 3동(6통) 대신동(1통, 2통) 일원</li> <li>•세부내용: 주거환경 조성 / 취약환경 개선(달성 희망길 사업달성, 백년길 사업) / 공동체 형성지원(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 쉼터 및 텃밭 조성, 마을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 함께 성장하는 마을(달성토성 주민학교, 주민동아리 운영)</li> <li>•주관체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시) / 건축주택과(구)</li> </ul>

17) 이 자료는 대구시, 중구청, 서구청 등의 지역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업무 추진 내용 및 사업 계획 등의 자료들을 정리해 재구성한 것이다.

	사업명	사업 개요
대구시 서구	행복한 날피골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li> <li>•사업기간: 2013~2018년</li> <li>•대 상 지: 비산2·3동 일원(달성토성 주변)</li> <li>•세부내용: 주택개보수 / 둘레길조성 / 먹거리 골목조성</li> <li>•주관체계: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시) / 도시재생과(구)</li> </ul>
	날피유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사업: 대구형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의제사업</li> <li>•사업기간: 2016~2017</li> <li>•대 상 지: 비산동 일원</li> <li>•세부내용: 마을 책 만들기 / 마을 노래 만들기 / 사진에 담은 우리동네</li> <li>•주관체계: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 마을공동체(마을도서관 햇빛마라, 교육공동체 회년공부방)</li> </ul>

구체적으로, 대구시의 경우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물원을 이전시키고 [달성토성과 달서천 복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작년(2017년)에 동물원 이전이 최종 결정되어 2025년까지 ‘달성토성’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주변에 ‘달성 둘레길’을 조성하고, ‘달서 역사문화마당과 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일대의 역사·문화적 흔적을 복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2천년 역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이라는 달성의 오랜 역사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구의 ‘지역정체성 찾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달성토성과 대구유성, 경상감영 등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추진하자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성사된다면 ‘대구 시민의 자긍심 고취’, ‘경제적 가치 창출’, ‘대구 정체성 살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 후보로 나선 한 정치인은 “달성토성은 삼한시대 조성되어 남아있는 유일한 토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철두철미하게 대구의 정기와 기상을 꺾고 말살, 유린하는 차원에서 일본신사와 동물원을 조성한 것이며 (...) 일제의 이 같은 만행으로 달구벌의 뿌리이자 중심이라는 의미가 퇴색했다<sup>18)</sup>”며 달성토성 복원을 정치 공약으로 내걸고 일본에 의해 파괴된 달성의 의미를 되찾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구청은 일제 강점기와 대구신사로 사용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달성공원 정문 앞 도로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순종황제 어가길]을 조성해 놓았다. 이는 중구를 대표하는 [근대路的 여행]이라는 투어프로그램과도 연계되는데 달성공원 입구에 순종황제 동상을 조성하고 어가길을 재현해 이를 투어코스에 포함시켜 ‘역사교훈 여행’ 혹은 ‘다크 투어리즘’을 표방하며 홍보하고 있다. 근대기 혹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이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가 남긴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재현하는데 있어 시각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구 ‘70억 순종

18) 출처: [임형길 중구청장 예비후보, “달성토성과 경상감영공원 유네스코 등재 필요”] 기사 / <브레이크뉴스> 2018.03.23.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황제 전국 순행 기념 중구 북성로 썸지공원 등 조성)(〈서울신문〉 2017.5.25.) 기사는 이 사업에 대해 '역사 왜곡의 현장'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논란은 현재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알리는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과 재현된 상징물이 '굴욕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구청 역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행복한 날피골만들기]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대구형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의제사업]으로 [날피유사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날피' 즉, '산이 날아와 앉았다'는 달성의 기원 전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날피유사프로젝트]에서 발간한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sup>19)</sup>라는 책에서는 전형적인 서민마을로서의 '비산동'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비산동은 1965년 달성 주변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및 재정비 등에 제한을 받아 노후한 불량주택들이 방치되면서 슬럼화 된 마을이다. 하지만 발전과 변화가 더디다 보니 도시 서민들이 지니고 있었던 풍경과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런 마을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비산동은 비싼 동네다'라는 말장난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늘 '서민동네', '달동네', '가난한 동네'라는 마을 이미지를 비튼 표현이다. 마을의 서민적 정서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달픈 살림살이 앞에서도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를 이기려 하기 보다는 함께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이 비산동 사람들입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도 사람 사는 정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 사람들은 비산동에서 공유하던 집단의 기억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났습니다.(햇빛따라, 2016:06)"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책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집단 기억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달성 공원 주변 마을인 비산동의 이런 서민적 정서는 2016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달성토성마을골목 축제]에도 반영되고 있다. 토성 아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의 정서를 축제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2018년 현재 달성의 장소성들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 현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토성'부

19) 이 책의 제작은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아 [날피유사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을 도서관(햇빛따라 도서관)과 교육모임(희년공부방) 같은 마을에 형성되어 있었던 소규모 공동체들이 참여했다. 동네 주민들이 '마을 이야기 수집단'이 되어 마을 이야기를 찾아내 이야기책을 엮고, 아이들은 마을 이야기를 소재로 마을 노래를 제작하였다.

터 ‘대구신사’ 그리고 ‘토성아래 서민 마을’이라는 장소성 까지 몇 가지 장소성들이 선별되고 또 서사화 되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재현되어 사용되면서 달성의 장소성은 다른 방식으로 재장소화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른 뒤 2018년 달성의 장소성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 5. 나오며

살펴본 것처럼 달성은 2천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시간성과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근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역사성, 도시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간성, 그리고 전설과 민담 뿐 만 아니라 지역적 경험들이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의 저장고라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달성에 축적되어 있는 장소성들 중 어떤 것들은 사용 가치를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사용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운명에 놓이기도 한다. 2천 년 전 지어졌다는 토성으로서의 장소성은 누가 보기에다 강조하고 보존해 지속시킬 가치가 있는 내러티브이다. 달성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나 발굴된 유물들은 여러 가지로 변주될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소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제강점기 ‘대구신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겪었던 지역민들의 신사 참배 경험은 잊고 싶은 어두운 역사이다. 또 나이든 동물들, 갈 곳 없는 노인들, 길거리 철학관 그리고 노숙인과 요구르트 아줌마<sup>20)</sup>와 같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달성공원의 모습은 이제 곧 사라질 풍경들이다. 이런 풍경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이고, 사용 가치를 다한 것, 그냥 외면하고 싶고 어쩌면 은폐해버리고 싶기도 한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함으로써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역사이고, 사회의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이며 우리가 가진 취약점에 대한 표상이다. 그래서 가장 보존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존’ 해야 할 가치와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전통을 ‘과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달성의 경우 한 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유산이었고, 어떤 시기에는 거의 과거의 잔존물 정도로 취급되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 온 시절 중요한 것은 ‘민족’과 ‘국가’였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민족’적 독립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해방 후에는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스케일에서 보자면 일개 지방의 토호세력의 근거지로 축성된 토성은 중요한 의미가 없었다. 어쩌면 모든 힘을 모아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를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쓸모없는 일이기도

20) 일반적으로 ‘바카스 아줌마’라고도 불리는 성매매여성들로, 달성공원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부른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재건하는데 온 나라가 힘을 쏟아 붙던 1990년대 까지 대구 지역에서 달성의 존재는 휴식과 유희를 위한 ‘공원’으로만 유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신자유주의의 도래 속에서, 국가적 스케일에 속하는 ‘지방’이 아니라 주체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역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토성으로 ‘달성’을 복원하겠다는 현재 대구시의 계획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달성토성이라는 과거 유산이 현시점에서 재장소화 되면서 만들어갈 로컬리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토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이 있던 수많은 달성의 장소성은 어떻게 처리 될까? ‘대구신사’로서의 장소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또 현재 ‘달성공원’으로서의 장소성은 이렇게 잊어버려도 괜찮은 가치 없는 이야기들일 뿐일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남겨놓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달성’이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 여전히 찾아내고 해석해야 할 기억과 기록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큰 변화의 시점에 놓여진 ‘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공동체 모두를 위한 장소와 장소성 사용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지역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참고자료 ]

- 20세기민중생활사 연구단, 2011, 『스기야마 토미』, 눈빛.
- 거리문화시민연대 저, 2007, 『대구新택리지』, 북랜드.
- 권상구, 2013, 『대구의 재발견: 도시만들기, 10년의 궤적과 경험』, 국토연구원.
- 권상구, 2015, “마을과 시간: 대구의 재발견-기억공간의 대구근대골목”, 『마을학 포럼』,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pp.130-169.
- 김영민, 2010, “풍경에서 장소로”, 『로컬의 문화지형』, 혜안, pp.61-106.
- 대구광역시서구, 2010, 『대구시 서구 행복한 날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 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여성가족재단, 2015, 『대구·여성·섬유』, 대구여성가족재단.
- 도심재생문화재단, 2015, 『[생애사열전 100선]으로 본 생애 포토 에세이 : 그들, 시절을 말한다』, (재)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 도심재생문화재단, 2016, “6.25참전 소년병의 생애와 바람: 윤한수(1935년생) 구술생애사”, 『대

- 구 중구생애사열전 64』, (재)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재단, 2016, “대광유기, 가난과 차별을 극복한 삶: 김현수(1942년생) 구술생애사”,  
 『대구 중구생애사열전 48』, (재)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재단, 2016, 『달성의 기억, 대구의 미래』, (재)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김춘식, 2011, “식민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2016,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미셸 푸코,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미와 조테츠, 2016, 『조선대구일반朝鮮大邱一斑(1910)』, 영남대학교출판부.  
 박충환, 2016, “대구근대골목투어 - ‘지붕 없는 박물관’과 스토리텔링의 정치적 지형”,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2호, 역사문화학회.  
 알라이다 아스만 저,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윤택림&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아르케.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조경만, 2004, “지역 문화과정과 문화 아카이브”, 『문화과학』 통권 제38호, 문화과학.  
 카와이 아사오, 1998, 『대구이야기大邱物語(1930)』, 대구중구문화원.

[참고기사]

- 〈동아일보〉 1923.07.31. [천여년전의 고물을 대구에서 발굴하였다] 기사.  
 〈동아일보〉 1923.10.26. [지방소개 ‘대구호’: 달성達城과 전설傳說] 기사.  
 〈동아일보〉 1939.10.17. [빛나는 우리의 자랑 보물, 명승 고적 추가지정 발표] 기사.  
 〈동아일보〉 1933.04.28. [아동 오십명 요배식 뒤에 졸도: 대구에서 생긴 참변] 기사.  
 〈매일신문〉 2013.03.15. [“그땐 그랬지” 달성공원 43년 ‘추억’ 보내세요].  
 〈부산일보〉 1940.02.13. [대구의 기원절大邱の紀元節] 사진 자료.  
 〈서울신문〉 2017.05.25.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기사.  
 〈신한민보〉 1909.02.10. [어가남순흥신뢰보] 기사.  
 〈브레이크뉴스〉 2018.03.23. [임형길 중구청장 예비후보, “달성토성과 경상감영공원 유네스코 등재 필요”] 기사.